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이아손과 성 소시파트로 사도들

중풍 병자 주일

성 이아손과 성 소시파트로 사도

제3조, 조과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1,2,3응송 / 봉독서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입당송 '모두 다 모여...' / 부활절 예식서 38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A 213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9, 32-42 / 253, 봉독서 53
- 복음경 : 요한 5, 1-15 / 253, B 18
- 성모송 / 부활절 예식서 26
- 영성체송 / 부활절 예식서 42
- '우리가 참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이아손과 소시파트로 사도들

교회는 4월 29일을 1세기에 사셨던 이 두 성인의 축일로 기념합니다.

사도 바울로가 로마서에서 “내 친척들 이아손과 소시파트로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16:21)라고 말하며, 이 두 성인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로가 ‘친척’이라고 말한 것은,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 즉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의 가족으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둔 모든 사람, 즉 하느님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

도의 피와 믿음이 아닌 그 어떤 것이 강한 연대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라는 이름보다 이 성스러운 연대를 더 잘 표현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친척이 된 이들,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공통의 아버지로 둔 이들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 서신을 쓸 때 항상 ‘형제들이여’,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택받은 협력자

요르고스 스테파스 대신부(1931-2017)

☞ 지난 주 주보에서 계속됩니다.

80년대와 90년대 한국에 자주 오셨던 요르고스 신부님은 아직 한국인 성직자가 없었던 새로운 지역 성당의 성찬 예배 집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옛 신자들은 요르고스 신부님이 여러 성당에서 경건하게,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성찬예배를 드린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후로도 요르고스 신부님은 이 시기에 건립된 성당과 소성당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의 정교회 선교를 위한 성금 모금을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으로 된 성반과 성작은 요르고스 신부님이 수도원 축성식 일 년 후인 1989년에 기증해 주신 것으로 신부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르고스 신부님이 직접 혹은 아테네에 있는 총대주교청의 극동아시아 정교회 선교재단을 통해서 한국에 보낸 성금이 너무 많아 다 헤아리기도 힘이 들 정도입니다. 신부님은 이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하셨습니다. 기사, 설교, 선교 활동 보고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소통을 통해서,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고, 이들이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성금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된 일화인데, 요르고스 신부님이 안식하시어 주님 품에 안긴 후 한 중년 부인이 선교재단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 “이제 요르고스 신부님이 안식하셨으니, 한국 정교회 선교를 위한 저의 성금은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2000년, 한국 정교회 선교 100주년 기념 때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께서는, 한국 정교회 선교를 위해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많은 도움을 주신 요르고스 스테파스 대신부님께 십자가를 수여하시면서 감사를 표현했고 신부님을 어머니 교회의 큰 자랑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요르고스 신부님을 기억하시고 불멸의 화관을 씌어주실 것이며, 또 “이 세상에서 그를 주의 교회에서 집전케 하셨듯이 하늘나라의 제단에서도 집전케 해주시실 것임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2)

b) 유대 지도자들

만일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서 어딘가에 숨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억누르려고 했던 소문 그대로 사람들은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가 죽어서 무덤 안에 안장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랐다.

예수가 무덤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중대한 문제였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냈고, 그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바로 자신이 주장한 그 메시아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고 의심하였다.

c)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칠 수 있었나?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따라 로마군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밧줄과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만일 이 군인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그들은 극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무덤에 들어가려고 제자들이 병사들에게 뇌물

을 주어 매수하기는 아주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11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비록 어찌어찌해서 허락을 얻어 무덤에 들어가 시신을 훔쳤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해서 결국 말하고 말았을 것이다. 부활 이후에 그들이 한 일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복음을 세계 곳곳으로 전하였고, 그런 신앙과 가르침 때문에 대부분 순교하였다. 만일 부활이 제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통과 죽음을 견딜 수 있었을까? 아마 그들중 누군가는 고문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 모든 걸 포기한 채로, 그것은 전부 지어낸 거짓말이며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실은 자기들이 시신을 훔쳐냈다고 고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위해 희생하며 자신들의 생명마저 바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였다. 수십년 동안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파하였던 제자들은 그로 인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다.

▶ 아타나시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요르고스 신부님은 하늘에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해주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기쁨이 충만한 성인

들과 함께 우리의 공동 집전자, 사랑하는 형제 요르고스 수도사제를 영원히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

†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대주교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5월 1일(금), 축일을 맞이하시는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님께 축하드리며, 건강하신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 고 바울로 권언건 신부 1주기 추도식

지난 4월 22일 주일에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에서 고 바울로 권언건 신부의 안식 1주기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 성화 수업

올해도 소존 야누디스 교수의 지도로 성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5월 21일(월) ~ 6월 23일(토)까지, 매주 월~토요일까지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성화 제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사무실(362-7005)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4월 21일 토요일에 권 매튜(세례명 마태오) 어린이가 로마 신부 집전으로 세례성사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의 은총으로 올바른 정교인으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식

- 5월 2일(수) ▷ 오순절 중양일
- 5월 5일(토) ▷ 성 이리니 대순교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